

## 화장을 열심히 하는 노력을

(성격 장애자가 살아가는 법)

여성의 아름다움에 관한 많은 사람들의 견해는 ‘화장으로 덧칠하지 않은 청초함’을 최고의 것으로 치는 것 같다. 그래서 화장을 지나치게 하는 여자를 ‘덕지덕지 발랐느니’, 혹은 ‘분 떡을 칠하고 다니느니’ 하며 혹평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

필자의 견해는 좀 다르다. 세숫비누와 밀크 로션의 단순한 조합만으로 도라지 속살 같은 싱그러움을 보여줄 수 있는 여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 아름다움에 관한 욕심이 있으며, 다른 사람들이 예쁘게 보아주기를 바라는 여자라면 적어도 기본적인 노력 이상은 하는 것이 도리이다.

성격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도 이는 별로 다르지 않다. 이미 성장하는 동안 거의 고착화(固着化)되어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자신의 성격이라 할지라도, 그 성격 때문에 사회생활에 지장이 많이 초래된다면 그것을 순화시키려는 노력을 꼭 해야만 한다.

지금까지 몇 가지의 특징적인 성격의 유형을 설명하였지만, 사실 모든 사람에게는 여러 유형의 성격이 조금씩은 다 섞여 있는 것이다. 다른 각도에서 말하면 인간의 성격적인 요소들을 인위적으로 분류해 내서 “누구누구는 무슨 성격장애”라고 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학문적이고 편의적으로 인간성에 접근해 가는 수단일 수도 있다.

또한 성격장애란 모두 인간과 인간, 또는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행동의 패턴을 주안점으로 분류하는 것이므로 때로는 ‘성격이 좋은 사람’ 또는 ‘고약한 인간’의 이분법적인 분류가 편리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정신과적 관점에서 기본 성격의 경향을 알아내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성격적 특징 안에 장차 살아가야 할 인생 역정이 함축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성격적 경향을 엿볼 수 있는 정서적(情緒的)인 표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정열, 도전, 회피, 비겁, 용기, 만용, 의심, 분노, 기쁨, 슬픔, 감정의 철퇴(撤退), 감정의 무절제, 충동, 억제, 불안, 공포, 공허함, 의존, 은화함, 적개심 등 수많은 추상명사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이들은 잔잔하게 숨어 있지만 어느 것이고 특별히 요동을 치는 것이 있다면 그 요동치는 요소에 의한 장애와 질병의 가능성은 이미 예측되어지는 것이

다.

성격이란 태어난 후 가깝게는 양육하는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결정되어진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태한 날로부터 부모에게서 물려받는 유전적 기질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으며, 성격이 완성된 후에도 거의 평생을 두고 발전해 가며 조금씩 수정되어져 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 어떤 특정한 기질을 타고난 사람이 그와는 정반대의 사고(思考)와 행동의 양식을 취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고래(古來)로부터 성격과 그 성격의 연마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킨 금언(金言)들이 많이 있어 왔던 것 같다.

한편 정신과적으로 몇 가지의 질병들은 사람의 기본 성격을 놀라울 정도로 변화시켜 버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머리를 다친 사람이 사경을 헤매고 난 후 갑작스레 참을성 없고 폭발적인 성격으로 변하여 그 후로는 일생을 마칠 때까지 그 성격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으며, 본드나 부탄가스를 상습적으로 사용하던 학생이 반년이 채 안되어 전과 다르게 거짓말을 술술 하고, 그것이 물리적인 훈육으로도 전혀 교정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런 경우 그 증상을 다스리기 위해 쓸 수 있는 특효약은 불행하게도 아직까지 별로 없다.

성격장애는 이미 정의했다시피 거의 일생을 통해 변하지 않는 행동 패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그에게 큰 충격을 준 사건이나 사고 또는 장시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가해지는 작은 스트레스에는 영향을 받는다. 중요한 것은 결코 좋은 방향으로는 쉽사리 변해 가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자신이 스스로를 뒤돌아보면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나”를 자주 반성하고 교정해 가지 않으면 미구(未久)에 ‘괴팍한 늙은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하겠다.